

唐宗海의 醫學見能을 學習하는 意義

조원준*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Significance of Studying *Uihakgyeonneung* Written by *Dang Jonghae*

Won Joon Chough*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eagu Haany University

Dang Jonghae put in order symptoms to volume one of *Uihakgyeonneung* by the attack region of illness, to volume two of *Uihakgyeonneung* by systemic symptoms, and ones peculiar to gynecology and pediatrics to volume three of *Uihakgyeonneung*. He presented the basis of a differential diagnosis by Yin-Yang, heat and cold, weakness and firmness. He seized the cause and mechanism of a disease obviously and took measures to cope with a disease. These were the result of his rationality that he integrated the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That is to say, he summarized the voluminous medical books and extracted the essential ones to utilize conveniently, and he made us grasp the essence of medicine to make symptoms concrete. Therefore, we can study this book as the fundamental courses to make use of basic research and clinical medicine.

Key words : *Dang Jonghae, Uihakgyeonneung*

서 론

중국에서는 19세기 말 中西醫匯通派가 출현하였는데 서양의 해부 생리 이론으로써 한의학의 古典醫理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한의학과 관련한 논술로써 서양의학의 관련이론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張錫純, 張壽頤, 恽鐵樵, 唐宗海 등이 있다. 이들 중 唐宗海는 王清任의 著書와 당시 유입되던 서양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中西匯通醫經精義』와 『血證論』 등 中西匯通醫書 5종을 저술하면서 ‘中西匯通’이란 말을 제시하였다.¹⁾ 그러므로 그를 단순히 중서의학의 집목을 시도한 결합의가로만 치부하거나 대표저서인 『血證論』만을 강조하여 혈병에 대하여만 치우쳐 연구한 의가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는 匯通醫書 외에도 『傷寒論淺注補正』, 『金匱要略淺注補正』과 같은 傷寒 金匱에 대한 연구서나 『醫學見能』과 같은 종합의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醫學見能』은 종합의서로서 한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범주를 포괄하였으면서도 임상의학의 요체만을 모아 간결히 정리하여 활용의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원서를 현토하여 『一見能解 經驗醫訣』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기도 하였다.²⁾

이 책의 특징은 범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책 자체가 의학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의서들처럼 病證名으로 조목을 설정하면 쉽게 알 수 없으므로 발병 부위와 증상 위주로 분류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고, 비록 간략하지만 證마다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음양 장부를 분별함으로 치료율을 높게 하였으며, 胎産과 麻痘를 제외한 부인과와 소아과의 내용은 남자의 치법과 동일하므로 같이 편집하여 번잡하게 중복되지 않게 하였고, 唐宗海의 원서에는 歌括이 붙어있지 않지만 奏伯未가 재편집할 때 이를 붙여 외우기 편하게 하였으며, 외과와 응급의학에 해당하는 부분도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다.³⁾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의 총론에 해당하는 首卷은 五臟, 六腑, 經氣, 望聞問切에 대한 것으로 진단을 위한 기초적인

- 1) 허중찬, 조원준, 당종해의 증서회통에 의한 비위관,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3(1):1-2, 2007.
- 2) 唐容川, 一見能解 經驗醫訣, 행림서원, 1963.
- 3) 唐宗海, 醫學見能,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 一、他書皆標證名, 是書原爲不知醫者而設, 標出證名, 轉生迷眩, 故見某痛苦即收入某門, 分部分類, 最便查閱
 - 一、是書雖簡略, 然每遇一證, 必究其源, 審知陰陽, 分別臟腑, 最爲靈驗, 雖見病治病, 比時書卻高一格。
 - 一、婦人小兒, 除胎産、麻痘外, 悉如男子治法, 且各有專書, 閱者能得此書之意, 再參各書, 自可辨其得失, 而取用不窮, 是書不多贊也。
 - 一、是書原無歌括, 苦於難記, 今按各節衍成絕句, 以便記誦。
 - 一、瘡傷跌打救絕等法, 是備急扶危之要務也, 附於卷末, 方法經驗, 當熟記之, 預備藥料, 以便濟世。

* 교신저자 : 조원준,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einlib@dhu.ac.kr, · Tel : 053-770-2249
· 접수 : 2010/01/16 · 수정 : 2010/01/31 · 채택 : 2010/02/10

것을 기재하고 있다. 1권은 頭證, 耳證, 目證, 口證, 鼻證, 齒證, 舌證, 喉證, 胸前, 大腹, 小腹, 脇肋, 背證, 腰證, 手證, 腳證, 前陰, 後陰, 大便, 小便으로 발병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하고 있다. 2권은 寒熱, 嘔吐, 咳嗽, 喘胸, 失血, 遺精, 言語, 心神, 斑黃, 汗出, 腫脹, 飲食, 起居, 倒仆, 抽掣, 蟲蟲, 鬼祟로 증상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하고 있다. 3권은 婦人調經, 婦人安胎, 婦人保產, 小兒外證, 小兒內證, 外科瘡症, 刀傷跌打로 부인과, 소아과, 외과 영역을 기재하고 있다. 4권은 救急으로 응급의학 영역을 기재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 중 실제 임상에서 병리적 진단 자료를 제시하여 분류하고 있는 1권과 2권 및 3권의 부인과의 소아과를 중심으로, 唐宗海가 저술한 『醫學見能』을 학습하는 의의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분론

1권. 발병 부위에 따른 분류

頭證은 後頭痛이거나 或 發熱 惡寒을 겸하는 것은 太陽經傷寒으로, 側頭痛이거나 或 寒熱往來를 겸하는 것은 少陽經傷風으로, 前頭痛이거나 或 發熱 口渴을 겸하는 것은 陽明經傷熱로 보았다. 雷頭頭痛이 或 左右로 偏在하여 나타나는 것은 陽虛한 사람이 風寒에 감수된 것으로, 頭痛이 머리를 부수는 듯하고 陰雨한 날씨에 더욱 심해지는 것은 眞陽이 위로 머리가 못 올라가는 것으로, 頭痛이 머리가 깨지는 듯하고 嘔吐涎沫을 겸하는 것은 肝經의 寒飲이 逆上한 것으로 보았다. 頭暈鬱冒하고 煩渴 悶滿한 것은 火가 痰을 끼고 上泛한 것으로, 頭暈飄搖하고 兩頰이 發赤한 것은 腎經이 虛하여 火가 動한 것으로 보았다.⁴⁾ 이는 먼저 경락학적으로 後, 側, 前頭痛을 太陽經, 少陽經, 陽明經에 배속시키고 다시 발열 양상과 증상을 중심으로 寒, 風, 熱로 감별한 것이다. 여기서 傷風은 中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風木의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雷頭頭痛의 근본 병인이 陽虛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濕頭痛은 濕이 眞陽의 상승을 阻礙한 것으로 보았으며, 嘔吐涎沫은 寒飲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현훈은 실증인 痰火와 허증인 腎虛火로 나누었다.

耳證은 耳鳴 耳聾이 或 口苦 寒熱을 겸하는 것은 少陽經의 風熱로, 或 脇痛 善怒를 겸하는 것은 肝經의 火鬱로, 障礙나 壅閉가 없는 것은 腎이 虛하여 陰氣가 逆한 것으로 보았다.⁵⁾ 이는 귀가 경락학적으로 인체 측면에 있고 肝膽의 주증상인 口苦, 脇痛, 善怒 등을 동반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肝膽經의 風熱이나 火鬱로 감별한 것이다. 또한 귀가 腎의 外候이므로 腎虛도 언급하고 있다.

目證은 大眼角이 腫하고 或 頭痛 惡寒을 겸하는 것은 太陽經의 風熱로, 小眼角이 腫하고 或 口苦 耳鳴을 겸하는 것은 少陽

經의 風火로, 下眼皮가 腫하고 눈에 芾발이 선 것은 陽明經의 風熱로, 目內가 癢痛하고 赤白雲翳가 있는 것은 肝經의 風濕熱로, 目光晦澁하고 恍惚하여 가까운 것을 못하는 것은 心脾兩虛로 보았다.⁶⁾ 여기서도 경락학적으로 눈의 내측, 외측, 하안검을 태양경, 소양경, 양명경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증상과 결부시켰는데 풍은 인체 상부와, 화열은 염증성 질환과, 습은 예막과, 心脾虛는 시력저하와 연결하여 감별한 것이다.

口證은 嘔吐酸水하고 或 腹滿 頭痛을 겸하는 것은 肝木이 脾土를 乘한 것으로, 口苦 口渴하고 或 咽乾 目眩을 겸하는 것은 少陽經의 相火로, 口恬 口膩하고 或 不思飲食을 겸하는 것은 脾經이 厚味에 상한 것으로, 口淡無味하고 或 腹滿 多睡하는 것은 脾虛하여 속에 寒이 있는 것으로, 口中腫痛하고 或 갈증이 나서 飲水하는 것은 胃中の 火가 上衝한 것으로, 口燥 舌乾하고 或 消渴引飲을 겸하는 것은 胃中の 陰液이 枯竭된 것으로, 口中腥臭하고 或 吐血 衄血을 겸하는 것은 胃中の 血이 燥熱한 것으로 보았다.⁷⁾ 이는 실증의 木克土, 傷食, 胃火와 허증의 脾虛寒, 胃陰虛로 감별한 것이다.

鼻證은 鼻流涕하고 코가 막혀 不通한 것은 肺經이 風寒에 감수된 것으로, 鼻根이 紅赤하고 鼻孔 內가 乾燥하여 쉽게 말라 붙는 것은 陽明經의 燥氣로, 鼻出血하고 或 頭暈 口渴을 겸하는 것은 陽明經의 血燥로, 鼻中에 生瘡한 것은 腫痛 塞癢을 막론하고 肝肺經의 痰火로 보았다.⁸⁾ 이는 외감 風寒과 胃의 燥熱 및 肝肺의 痰火로 감별한 것이다.

齒證은 牙齒가 疼痛한 것이 충치로 인한 것은 風濕熱로, 牙齒가 腫痛하고 或 兼하여 口舌이 모두 아픈 것은 胃經의 風火로, 牙痛하나 붓지 않고 或 부어도 涼藥이 이롭지 못한 것은 腎中の 虛火로 보았다.⁹⁾ 이는 蟲齒와 胃의 風火 및 腎의 虛火로 감별한 것이다.

舌證은 舌에 苔가 있고 或 口苦 溺黃을 겸하는 것은 三焦經의 鬱熱로, 舌尖이 赤痛하고 或 鉅齒나 紅點이 생긴 것은 心經의 游火로, 舌苔黃燥하고 消渴引飲을 겸하는 것은 胃中에 熱邪가 있는 것으로, 舌苔滑潤하고 二便清利를 겸하는 것은 眞寒假熱로, 舌黑生刺하고 手足이 日晡에 潮熱하는 것은 胃中에 燥屎가 있는 것으로, 舌黑生刺하고 心煩하여 安臥하지 못하는 것은 心火의 亢盛으로 보았다.¹⁰⁾ 이는 三焦火, 心火, 胃熱과 眞寒假熱의 虛火로

6) 大眼角腫 或兼頭痛惡寒者 太陽經風熱也 宜加減敗毒散; 小眼角腫 或兼口苦耳鳴者 少陽經風火也 宜加減柴胡湯; 下眼皮腫 以及繞眼紅腫者 陽明經風熱也 宜加味銀翹湯; 目內癢痛 以及赤白雲翳者 肝經風濕熱也 宜加減瀉肝湯; 目光晦澁 恍惚不能近視者 心脾兩虛也 宜歸脾湯加減

7) 嘔吐酸水 或兼腹滿頭痛者 肝木乘脾土也 宜加味吳茱湯; 口苦而渴 或兼咽乾目眩者 少陽經相火也 宜加減柴胡湯; 口恬而膩 或兼不思飲食者 脾經傷厚味也 宜加味香砂湯; 口淡無味 或見腹滿多睡者 脾虛中有寒也 宜加味理中湯; 口中腫痛 或見發渴飲水者 胃中火上衝也 宜時方甘露飲; 口燥舌乾 或兼消渴引飲者 胃中陰液枯也 宜加減地黃湯; 口中腥臭 或兼吐血衄血者 胃中血燥熱也 宜清陽瀉血湯

8) 鼻流涕濁 如有塞塞不通者 肺經受風寒也 宜加味香蘇飲; 鼻根紅赤 孔內乾燥結痂者 陽明經燥氣也 宜加味升葛湯; 鼻中流血 或兼頭暈口渴者 陽明經血燥也 宜加味甘露飲; 鼻中生瘡 無論腫痛塞癢者 肝肺經痰火也 宜三白注鼻丹

9) 牙齒疼痛 由於生蟲蝕剝者 風濕熱所化也 宜烏梅化蟲散; 牙齒腫痛 或兼口舌皆痛者 胃經之風火也 宜清熱去風湯; 牙痛不腫 或腫不利涼藥者 腎中之虛火也 宜加減八味丸

10) 凡舌有苔 或兼口苦溺黃者 三焦經鬱熱也 宜加味柴胡湯; 舌尖赤痛 或生鉅齒紅點者 心經之游火也 宜加減瀉心湯; 舌苔黃燥 兼見消渴引飲者 胃

4) 頭痛在後 或兼發熱惡寒者 太陽經傷寒也 宜加味敗毒散; 頭痛在側 或兼寒熱往來者 少陽經傷風也 宜加味柴胡湯; 頭痛在前 或兼發熱口渴者 陽明經傷熱也 宜加味升葛湯; 雷頭風痛 或偏在左在右者 陽虛中風寒也 宜艾灸鹽摩法; 頭痛如碎 每遇陰雨更甚者 眞陽不上頭也 宜加味白通湯; 頭痛如破 兼見嘔吐涎沫者 肝經寒飲逆也 宜加味吳茱湯; 頭暈鬱冒 其人煩渴悶滿者 火挾痰上泛也 宜加味銀菊湯; 頭暈飄搖 其人兩頰發赤者 腎經虛火動也 宜加味地黃湯

5) 耳鳴耳聾 或兼口苦寒熱者 少陽經風熱也 宜仲景柴胡湯; 耳鳴耳聾 或兼脇痛善怒者 肝經之火鬱也 宜加味瀉肝湯; 耳鳴耳聾 並無障礙壅閉者 腎陰陰氣逆也 宜加味磁珠丸

감별한 것이다.

喉證은 咽喉紅腫이 심하고 粘稠한 痰을 동반하는 것은 風火의 壅塞으로, 咽喉白爛하고 목소리가 쉬고 작아서 잘 나오는 것은 火熱이 肺金을 乘한 것으로, 咽中疼痛하고 누렇게 되거나 수포 반점이 생기는 것은 濕熱이 結氣한 것으로, 咽中生蛾하고 막히거나 좁아져서 잘 통하지 않는 것은 心經의 火가 上逆한 것으로 보았다. 紅喉證은 癰 蛾 腫 起를 막론하고 모두 血分熱로, 白喉證은 癰 爛 疳 蝕을 막론하고 모두 氣分熱로 보았다.¹¹⁾ 여기서 전적으로 실증의 火熱로 보았으나 虛火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胸前은 胸前脹滿하고 口渴 脇痛을 겸하는 것은 少陽氣가 不暢한 것으로, 胸前痺痛하고 겸하여 통증이 등까지 미치는 것은 心肺의 陽鬱로, 胸前脹滿하고 식사 후 痞滿한 것은 胃虛하여 痰이 생긴 것으로, 胸前結痛하고 손을 대어 按摩하지 못하는 것은 水火가 서로 搏結한 것으로, 胸前脹滿하고 遊走하여 소리나 嘔證이 있는 것은 膈上에 水飲이 있는 것으로, 胸前疼痛이 背와 心에 미쳐 그치지 않는 것은 寒氣가 서로 攻衝하는 것으로, 胸前煩痛하고 口酸 口苦 悶鬱하는 것은 火氣가 結滯한 것으로 보았다.¹²⁾ 이는 氣滯와 痰飲 및 寒으로 감별한 것이다.

大腹은 大腹絞痛하고 閉悶하여 吐瀉하지 못하는 것은 脾實熱閉로, 腹中切痛하고 吐瀉 厥冷을 겸하는 것은 脾虛하여 霍亂하는 것으로, 腹中脹滿하고 식후 倦怠하며 倒飽하는 것은 脾虛하여 運化가 부족한 것으로, 腹中脹滿하고 大便漉泄을 겸하는 것은 濕이甚하여 濡泄하는 것으로, 腹中疼痛하고 物이 臍로부터 衝上하는 것은 腎氣의 奔豚으로, 腹中疼痛하고 物이 左로부터 衝上하는 것은 肝氣의 奔豚으로, 腹中大痛하고 物이 突起하여 拒摩하는 것은 虛寒에 實象을 나타내는 것으로, 腹痛喜按하고 舌上에 白花點이 있는 것은 內에 蛔蟲이 동요하는 것으로, 腹中絞痛하고 兩脇으로 串走하여 鳴痛하는 것은 痰飲의 積聚로, 腹中刺痛하고 脈澁痛如刀鋒하는 것은 瘀血의 阻滯로, 腹中猝痛이 邪祟에 상하여 생긴 것은 肝氣가 脾土를 乘한 것으로, 腹中猝痛이 邪祟에 상하여 생긴 것은 血이 正氣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았다.¹³⁾ 여기서 脾實

이라고 한 것은 邪氣實로 증상이 급격하고 심함을 말한 것이다. 또한 霍亂, 倒飽, 泄瀉 등이 비허로 인해 운화가 불리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혈액량의 과다나 心陽의 허쇠 등으로 발생하는 奔豚에 대한 구별은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 寒腹痛과 蛔痛, 痰飲, 瘀血痛도 감별하였다. 그러나 병인으로 邪祟를 언급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오류로 보인다.

小腹은 小腹滿痛이 小便不通으로 인한 것은 膀胱의 水結로, 小腹滿痛하고 小便이 通利하는 것은 胞宮의 血結로, 小腹絞痛이 臍 주위 上下로 참을 수 없는 것은 下焦의 寒疝으로, 小腹旁痛하여 軟脇까지 俱痛한 것은 厥陰의 血이 不和한 것으로, 小腹疼痛이 방귀나 腹鳴하면 좋아지는 것은 小腸氣가 不和한 것으로, 小腹疼痛이 淋閉 血虛로 인한 것은 胞宮의 瘀와 熱로 보았다.¹⁴⁾ 이는 소변 양상으로 水結과 血結을 감별한 것이며, 기타 寒과 氣滯 및 瘀熱에 의한 병인도 언급하고 있다.

脇肋은 兩脇下痛하여 俯仰屈伸하기 어려운 것은 少陽氣가 不和한 것으로, 兩脇下痛하고 穿透遊走하며 소리가 나는 것은 肝脾의 痰飲으로, 兩軟脇痛이 小腹에 미쳐 俱痛하는 것은 厥陰血이 不和한 것으로, 脇下偏痛하고 痞結硬滿하여 없어지지 않는 것은 血氣痰의 三積으로 보았다.¹⁵⁾ 이는 경락학적으로 少陽과 厥陰을 감별한 것이며 기타 痰飲과 血氣痰積도 언급하고 있다.

背證은 背惡寒冷이 外感發熱로 인한 것은 太陽經傷寒으로, 背惡寒冷이 혹 手足清冷을 겸하는 것은 太陽經陽虛로, 背痛連項하고 혹 發熱惡寒을 겸하는 것은 太陽經風寒으로, 背痛連肩하고 혹 吐痰 咳嗽을 겸하는 것은 肺經에 痰飲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⁶⁾ 이는 외감 傷風寒과 陽虛 및 痰飲으로 감별한 것이다.

腰證은 腰間沈痛이 五千錢 무게의 것을 두른 것 같은 것은 腎經이 寒濕에 감수된 것으로, 腰痛難忍하여 刀鋒로 刺割하는 것 같은 것은 瘀血이 腰際에 積한 것으로, 腰痛軟弱하고 혹 小便不利를 겸하는 것은 虛勞하여 腎氣가 弱한 것으로, 腰痛連背하고 혹 寒熱頭痛을 겸하는 것은 風寒이 太陽을 침범한 것으로, 腰痛溺赤하고 혹 구부리나 펴지 못하는 것은 陰虛하여 筋骨이 萎縮된 것으로 보았다.¹⁷⁾ 이는 경락학적으로 腎과 결부시켰으며, 증상을 근거로 寒濕, 風寒이나 瘀血, 虛勞, 陰虛 등으로 감별한 것이다.

手證은 手發厥冷하고 혹 泄利清穀을 겸하는 것은 脾胃의 虛寒으로, 手發潮熱하고 譫語 舌黑을 겸하는 것은 胃中에 燥屎가

中有熱邪也 宜加味白虎湯; 舌苔滑潤 兼見二便清利者 眞寒而假熱也 宜加味益元湯; 舌黑生刺 手足日晡潮熱者 胃中有燥屎也 宜調胃承氣湯; 舌黑生刺 心煩不得安臥者 心火之亢盛也 宜銀翹瀉心湯

- 11) 咽喉紅腫 其色多帶痰粘者 風火之壅塞也 宜加味甘桔湯; 咽喉白爛 其聲嘶小不出者 火熱乘肺金也 宜滋肺百合湯; 咽中疼痛 生黃起泡起點者 濕熱之結氣也 宜清散薄荷湯; 咽中生蛾 壅塞關隘不通者 心經火上逆也 宜加減導赤散; 凡紅喉證 無論癰蛾腫起者 總屬血分熱也 宜點驗膽礬丸; 凡白喉證 無論癰爛疳蝕者 總屬氣分熱也 宜吹喉珠黃散
- 12) 胸前脹滿 兼見口渴脇痛者 少陽氣不暢也 宜加減柴胡湯; 胸前痺痛 兼見痛而微背者 心肺之陽鬱也 宜瓜蒌薤白湯; 胸前脹滿 飯後更覺痞滿者 胃虛而生痰也 宜香砂六君湯; 胸前結痛 不可觸近按摩者 水火相搏結也 宜消息陷胸湯; 胸前脹滿 遊走有聲而嘔者 膈上有水飲也 宜加味二陳湯; 胸前疼痛 微背微心不止者 寒氣相攻衝也 宜烏頭赤丸方; 胸前煩痛 口酸口苦悶鬱者 火氣之結滯也 宜肅清舒氣湯
- 13) 大腹絞痛 閉悶不得吐瀉者 脾實而熱閉也 宜加味三物湯; 腹中切痛 兼見吐瀉厥冷者 脾虛發霍亂也 宜仲景理中湯; 腹中脹滿 飯後倦怠反飽者 脾虛少運化也 宜加味六君湯; 腹中脹滿 兼見大便漉泄者 濕甚則濡泄也 宜時方胃苓湯; 腹中疼痛 有物自臍衝上者 腎氣之奔豚也 宜腎氣奔豚湯; 腹中疼痛 有物自左衝上者 肝氣之奔豚也 宜肝氣奔豚湯; 腹中大痛 有物突起拒摩者 虛寒見實象也 宜大建中厥方; 腹痛喜按 舌上有白花點者 內有蛔蟲擾也 宜醋制烏梅丸; 腹中絞痛 串走兩脇鳴痛者 痰飲之積聚也 宜加味二陳湯; 腹中刺痛 脈澁痛如刀鋒者 瘀血之阻滯也 宜加減桃仁湯; 腹中猝痛 由傷風邪而得者 肝氣乘脾土也 宜柴胡桂枝湯; 腹中猝痛 由傷

邪祟而得者 皆血亂正氣也 宜加減正氣散

- 14) 小腹滿痛 由于小便不通者 膀胱之水結也 宜加味五苓散; 小腹滿痛 小便仍然通利者 胞宮之血結也 宜加減桃仁湯; 小腹絞痛 繞臍上下難忍者 下焦之寒疝也 宜烏豆羊肉湯; 小腹旁痛 以及軟脇俱痛者 厥陰血不和也 宜當歸四逆湯; 小腹疼痛 得尻腹鳴乃快者 小腸氣不和也 宜宣明橘核丸; 小腹疼痛 由于淋閉血虛者 胞宮瘀與熱也 宜下瘀清熱湯
- 15) 兩脇下痛 難于俯仰屈伸者 少陽氣不和也 宜加減柴胡湯; 兩脇下痛 穿透遊走有聲者 肝脾之痰飲也 宜加味二陳湯; 兩軟脇痛 以及小腹俱痛者 厥陰血不和也 宜血府逐瘀湯; 脇下偏痛 痞結硬滿不去者 血氣痰三積也 宜三消去痞湯
- 16) 背惡寒冷 由于外感發熱者 太陽經傷寒也 宜人參敗毒散; 背惡寒冷 或兼手足清冷者 太陽經陽虛也 宜附子湯加味; 背痛連項 或兼發熱惡寒者 太陽經風寒也 宜人參敗毒散; 背痛連肩 或兼吐痰咳嗽者 肺經有痰飲也 宜加味蘇子湯
- 17) 腰間沈痛 如帶五千錢重者 腎經受寒濕也 宜時方腎着湯; 腰痛難忍 有如刀鋒刺割者 瘀血積腰際也 宜鹿角利腰湯; 腰痛軟弱 或兼小便不利者 虛勞腎氣弱也 宜金匱腎氣丸; 腰痛連背 或兼寒熱頭痛者 風寒襲太陽也 宜人參敗毒散; 腰痛溺赤 或兼曲而不伸者 陰虛筋骨痛也 宜加味補陰丸

있는 것으로, 手心發熱이 흔히 밤중에 발생하는 것은 瘀血이 陰分에 있는 것으로, 手腕疼痛하고 혹 身痛拘急을 겸하는 것은 風寒濕이 습하여 痺證이 된 것으로, 手心發熱이 반드시 점심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脾胃에 飲食이 停滯된 것으로, 手腕麻木하고 腕部 전체가 痛不仁하는 것은 血虛하여 風濕이 생긴 것으로 보았다.¹⁸⁾ 이는 四末이 脾胃에 속한다는 입장에서 脾胃의 虛實과 瘀血, 風寒濕痺, 血虛 등으로 감별한 것이다.

脚證은 脚冷厥逆하고 혹 下利清穀을 겸하는 것은 脾胃의 虛寒으로, 脚發熱厥하고 잠잘 때 덮지 않으려는 것은 腎中의 眞陰이 虛한 것으로, 脚跗腫大하고 靑白한 것이 누에처럼 明亮한 것은 寒濕氣가 浸注한 것으로, 脚跗亦腫하여 生瘡 潰爛하는 것은 濕熱이 下注한 것으로, 脚痛瘦削이 乾枯 發熱한 것은 肝肺의 痿弱으로, 婦人脚心이 疼痛하여 刀錐로 찌르는 것 같은 것은 少陰經의 瘀血로 보았다.¹⁹⁾ 이는 비신이 허한하여 후하지 못하는 寒厥과 腎陰이 허하여 火動하는 熱厥로 감별한 것이나 『내경』과 『상한론』에서 말하는 厥證의 병리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발의 냉감과 열감을 구분한 것일 뿐이다. 또한 습의 下流하는 성질을 근거로 寒濕과 濕熱로 나누었으며, 肝主筋과 肺熱에 의한 痿證 및 瘀血도 언급하고 있다.

前陰은 前陰痒濕하여 赤腫 生瘡한 것은 肝經의 濕熱로, 陰囊脹結하고 통증이 小腹을 당기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肝經의 疝氣로, 前陰暴縮하고 혹 轉筋入腹하는 것은 肝腎의 虛寒으로, 陰囊縮入하고 舌卷 心熱을 겸하는 것은 肝經의 熱邪로, 陰莖蟲蝕하고 婦人陰蝕하는 것은 옛날의 狐惑病이라고 보았다.²⁰⁾ 이는 경락학적으로 肝經에 연관되면서 증상적으로 濕熱과 虛寒으로 감별한 것이다. 또한 疝氣와 狐惑病도 언급하고 있다.

後陰은 後陰脫出하여 대변본 지 오래된 후에 들어가는 것은 中氣가 下陷한 까닭으로, 後陰瘡痔하여 一切의 腫痛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陽明의 血燥로 보았다.²¹⁾ 이는 허증의 中氣下陷과 실증의 陽明血燥로 감별한 것이다.

大便是 大便不通하고 口渴 小便黃한 것은 陽明의 燥結로, 大便不通하고 口和 小便清한 것은 脾에 寒氣가 凝結한 것으로, 大便으로 靑白의 完穀을 漉泄하는 것은 脾經의 寒濕氣로, 濁垢 膠膩를 漉瀉하는 것은 腸中の 濕熱로, 반드시 五更에 漉瀉하는 것은 腎寒侮脾로, 大便完穀하고 식사 후 바로 利出하는 것은 肺熱暴注로, 便瀉赤白하고 下部逼脹하여 難通하는 것은 濕熱이 鬱하여 痢가 된 것으로, 便痢純赤하고 혹 口渴 溺赤하는 것은 血分에

熱結한 것으로, 下痢純白하고 裏急下重하는 것은 氣分에 熱鬱한 것으로, 下痢噤口하고 飲食不納하는 것은 邪熱이 中氣를 傷한 것으로, 大便久痢에 諸藥이 禁止하지 못하는 것은 寒熱이 錯雜한 것으로 보았다.²²⁾ 이는 실증의 胃熱과 허증의 脾寒을 바탕으로 변비와 설사를 감별한 것이다. 또한 赤白으로 氣血分을 나누기도 하였으며 濕熱과 寒熱錯雜도 언급하고 있다.

小便은 小便赤短하고 外證과 內傷이 없는 것은 小腸經의 火氣로, 小便白濁하여 甚하면 米飲과 같은 것은 脾經의 濕氣로, 小便短澀하고 澀痛하는 것은 膀胱의 熱淋으로, 小便不通하고 點滴하여 다 나오지 못하는 것은 膀胱의 熱結로, 小便帶血하고 혹 莖中割痛을 겸하는 것은 熱이 胞中の 血을 動한 것으로, 小便不通하여 諸藥이 모두 效驗이 없는 것은 氣道가 迫塞한 때문으로, 小便過多하여 遺瀉不禁하는 것은 膀胱과 腎의 寒으로 보았다.²³⁾ 이는 장상학적으로 小腸火, 膏梁厚味에 의한 脾濕, 膀胱經의 寒熱과 氣滯, 胞熱, 腎寒 등으로 감별한 것이다.

2권. 증상에 따른 분류

寒熱은 發熱 惡寒하고 皮毛가 灑淅 無汗하는 것은 風寒이 膚表를 막은 것으로, 翕翕하게 發熱 惡風하고 自汗하는 것은 風寒이 腠理를 侵襲한 것으로, 但熱不寒하고 口乾 舌燥 溲黃하는 것은 陽明의 燥熱로, 但寒不熱하고 아울러 燥渴等證이 없는 것은 少陰의 陽虛로, 皮膚發熱하고 夜晩에 潮熱이 더욱甚한 것은 陰血이 陽을 濡養하지 못하는 것으로, 午後發熱하고 잠잘 때 盜汗하는 것은 虛勞로 인한 骨蒸熱로, 寒熱往來가 일정한 시간에 發作하는 것은 少陽經의 瘧疾로, 아침에 潮熱하고 밤에 退熱하는 것은 陽氣가 陰에 陷入한 것으로, 身熱 面赤하고 清水 完穀을 下利하는 것은 裏寒 外熱로, 身熱 面赤하고 煩燥하여 泥水에 넣고 자 하는 것은 陰甚格陽으로, 봄에 發熱하고 氣喘 口乾渴하는 것은 風熱氣를 감수한 것으로, 여름에 發熱하고 口渴 心煩懊하는 것은 暑熱氣에 상한 것으로 보았다.²⁴⁾ 이는 外因으로 風寒, 燥熱, 瘧疾, 風熱, 暑熱을, 內因으로 陽虛, 陰血虛, 虛勞, 裏寒, 陰盛格陽

18) 手發厥冷 或兼泄利清穀者 脾胃之虛寒也 宜附子理中湯; 手發潮熱 兼見 譫語舌黑者 胃中有燥屎也 宜調胃承氣湯; 手心發熱 多在入夜以後者 瘀血在陰分也 宜四物化瘀湯; 手腕疼痛 或兼身痛拘急者 風寒濕合痺也 宜五物逐瘀湯; 手心發熱 必在午飯以後者 脾胃停飲食也 宜加味平胃散; 手腕麻木 通腕皆痛不仁者 血虛生風濕也 宜養血消風湯
19) 脚冷厥逆 或兼下利清穀者 脾胃之虛寒也 宜加味四逆湯; 脚發熱厥 夜睡不欲被覆者 腎中眞陰虛也 宜六味地黃丸; 脚跗腫大 靑白如蠶明亮者 寒濕之氣注也 宜神仙鷄鳴散; 脚跗亦腫 以及生瘡潰爛者 濕熱之下注也 宜蒼朮知母湯; 脚痛瘦削 無論乾枯發熱者 肝肺之痿弱也 宜去瘀治血湯; 婦人脚心 疼痛如刀錐刺者 少陰經瘀血也 宜仲景溫經湯
20) 前陰痒濕 以及赤腫生瘡者 肝經之濕熱也 宜龍膽瀉肝湯; 陰囊脹結 痛引小腹以內者 肝經之疝氣也 宜茴香五苓散; 前陰暴縮 或兼轉筋入腹者 肝腎之虛寒也 宜加味四逆湯; 陰囊縮入 兼見舌卷心熱者 肝經之熱邪也 宜生犀瀉肝湯; 陰莖蟲蝕 以及婦人陰蝕者 古之狐惑病也 宜外洗苦參湯
21) 後陰脫出 尿後良久乃入者 中氣下陷故也 宜補中益氣湯; 後陰瘡痔 一切腫痛諸苦者 陽明之血燥也 宜麻仁地榆湯

22) 大便不通 口渴而小便黃者 陽明之燥結也 宜加味承氣湯; 大便不通 口和而小便清者 脾寒氣凝結也 宜加味理中湯; 大便漉泄 其色靑白完穀者 脾經寒濕氣也 宜加味胃苓湯; 大便漉瀉 其色濁垢膠膩者 腸中之濕熱也 宜清熱瀉腸湯; 大便漉瀉 必在五更時分者 腎寒而侮脾也 宜加味四神丸; 大便完穀 食入即刻利出者 肺熱而暴注也 宜瀉肺止利湯; 便瀉赤白 下部逼脹難通者 濕熱鬱爲痢也 宜加減芍藥湯; 便痢純赤 或見口渴溺赤者 熱結在血分也 宜地榆白頭湯; 下痢純白 但見裏急下重者 熱鬱在氣分也 宜膏芩清痢散; 下痢噤口 其人飲食不納者 邪熱傷中氣也 宜人參開噤湯; 大便久痢 諸藥不能禁止者 寒熱之錯雜也 宜薑連四神丸
23) 小便赤短 別無外證內傷者 小腸經火氣也 宜加味導赤散; 小便白濁 甚則盡如米飲者 脾經之濕氣也 宜草薢分清飲; 小便短澀 每溺則澀而痛者 膀胱之熱淋也 宜車前五淋散; 小便不通 點滴俱不能出者 膀胱之熱結也 宜滋腎通關丸; 小便帶血 或兼莖中割痛者 熱動胞中血也 宜加味五淋散; 小便不通 諸藥俱不效驗者 氣道迫塞故也 宜通氣麻杏湯; 小便過多 以及遺瀉不禁者 膀胱與腎寒也 宜附子溫腎丸
24) 發熱惡寒 皮毛灑淅無汗者 風寒閉膚表也 宜原方麻黃湯; 發熱惡風 翕翕然而自汗者 風寒襲腠理也 宜原方桂枝湯; 但熱不寒 口乾舌燥溲黃者 陽明之燥熱也 宜原方白虎湯; 但寒不熱 並無燥渴等證者 少陰之陽虛也 宜長沙附子湯; 皮膚發熱 夜晩潮熱更甚者 陰血不濡陽也 宜當歸補血湯; 午後發熱 睡後更覺盜汗者 虛勞骨蒸熱也 宜柴胡清蒸湯; 寒熱往來 發作有定時候者 少陽經瘧疾也 宜獨活黃芩湯; 朝發潮熱 入夜則又退熱者 陽氣陷入陰也 宜補中益氣湯; 身熱面赤 下利清水完穀者 裏寒而外熱也 宜加味白通湯; 身熱面赤 煩燥欲臥泥水者 陰甚而格陽也 宜益元艾附湯; 春月發熱 氣喘而口渴渴者 感風熱之氣也 宜麻杏甘石湯; 夏月發熱 口渴而心煩懊者 傷暑熱之氣也 宜加味六一散

을 감별한 것으로 惡寒하는 것은 外寒이 침입하여 陽氣의 작용을 저해하였기 때문이고, 發熱하는 것은 이에 대한 陽氣의 반발이므로 外인이든 내인이든 寒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外感 熱邪의 경우 陽熱한 반응 자체가 인체에 危害가 되므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嘔吐는 嘔吐不食하고 水飲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火熱이 서로 拒隔하는 것으로, 嘔吐能食하되 먹으면 바로 吐하는 것은 兩熱이 서로 爭沖하는 것으로, 먹은 지 오래된 후 吐하되 大腹脹滿을 겸하는 것은 脾經의 火가 부족한 것으로, 胸前脹滿을 겸하는 것은 胃府의 虛寒으로, 水液도 같이 吐出하는 것은 腎部의 虛寒으로, 酸水도 같이 吐出하는 것은 肝藏에 寒熱이 있는 것으로, 痰涎만 토하고 혹 咳嗽 頭痛을 겸하는 것은 胃中에 痰飲이 있는 것으로, 酸水만 토하고 혹 嘔吐하고 頭痛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것은 肝의 寒氣가 上逆한 것으로, 嘔吐가 그치지 않고 腹痛 下利를 겸하는 것은 脾氣의 虛脫로, 嘔吐 發熱하고 혹 口苦 胸滿을 겸하는 것은 少陽의 逆氣로, 卒然 嘔吐하고 發熱 惡心을 겸하는 것은 瘴厲 異氣에 감수된 것으로 보았다.²⁵⁾ 이는 상상학적으로 脾寒과 胃熱를 중심으로 병인을 나눈 후 水液은 腎과, 酸水는 肝과, 痰涎은 痰飲과 연관지어 감별한 것이다. 또한 少陽과 瘴厲도 언급하고 있다.

咳嗽는 外感 咳嗽에 清白의 묽은 痰을 토하는 것은 傷寒에 水氣가 있는 것으로, 黃色의 진한 痰을 토하는 것은 傷風으로 인하여 火氣가 動한 것으로, 久咳 上氣하고 痰涎이 많으며 發聲이 원활한 것은 肺腎의 陽虛로, 發聲이 乾澁하고 痰이 凝結되는 것은 肺腎의 陰虛로, 小兒가 咳嗽를 연속하여 數十餘 차례 소리내어 하는 것은 肝血이 不和한 것으로, 婦人乾咳가 經水의 不行으로 인한 것은 衝任의 氣逆으로 보았다.²⁶⁾ 이는 실증인 外感 傷寒, 傷風과 허증인 肺腎의 陽虛, 陰虛로 감별한 것이다. 또한 소아의 肝血不和와 婦人의 衝任氣逆도 언급하고 있다.

喘胸에 氣緊喘促하고 鼻塞 聲音不利한 것은 風寒이 肺竅를 폐색한 것으로, 氣喘促하되 呼出氣短하는 것은 內에 水飲이 정체한 것으로, 吸入氣短하는 것은 腎中의 氣虛로, 胸膈有聲하고 喉中에 澀澀한 소리가 나며 不利한 것은 痰氣가 寒에 阻滯된 것으로, 喘胸氣逆하고 噫咳 痰塞 溺黃하는 것은 肺胃의 火逆으로 보았다.²⁷⁾ 이는 실증으로 風寒과 火逆을, 허증으로 腎氣虛를 감별

한 것이다. 水飲과 痰氣도 언급하고 있다.

失血은 갑자기 吐血하고 頭痛 寒熱을 겸하는 것은 外感으로 인하여 經脈을 상한 것으로, 吐血 口渴하고 脈洪數 溺赤하는 것은 火熱이 陰分을 상한 것으로, 吐血 口和하고 脈弦微 溺清한 것은 陽虛陰脫로, 吐後 口渴하고 血이 검은 빛을 띠며 腹痛하는 것은 瘀血이 腹裏에 積滯된 것으로, 吐血하기 前에 반드시 먼저 심하게 惡心하는 것은 血潮凌心으로, 먼저 咳嗽한 후에 吐血證이 생긴 것은 肺燥하여 陰脈을 상한 것으로, 먼저 吐血한 후에 咳嗽證이 생긴 것은 陰陽이 相符하지 못한 것으로, 吐血 後에 皮膚가 魚鱗처럼 甲錯하는 것은 腹中에 乾血이 있는 것으로, 大便下血하되 변보기 전에 출혈하는 것은 腸風 痔瘡類로, 변본 후에 출혈하는 것은 肝脾가 統血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신에 汗血하고 심하면 疔은 옷이 다 붉은 것은 火가 甚하여 血溢한 것으로, 鼻出血하되 齒縫까지 出血하는 것은 胃中의 燥熱로 보았다.²⁸⁾ 이는 外感으로 경맥이 상해 출혈한다는 것과 血熱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갈증 유무, 해수와 토혈의 선후 문제, 대변과 하혈의 선후 문제 등을 중요한 감별 지표로 삼은 것이다. 또한 어혈과 胃熱도 언급하고 있다.

遺精은 遺精有夢하고 혹 心煩 善怒를 겸하는 것은 心肝의 火邪로, 遺精無夢하고 혹 陰頭寒冷을 겸하는 것은 腎元의 陽虛로 보았다.²⁹⁾ 여기서는 꿈의 유무도 감별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증상적으로 한열을 나눠 火邪와 陽虛로 감별하는 것이 더 낫을 것 같다.

言語는 聲音이 閉塞하고 鼻塞 喉中緊한 것은 會厭에 寒이 침입한 것으로, 言語不利하고 喉痺 咽澀하는 것은 肺經에 痰火가 있는 것으로, 聲音嘶小하고 喉乾 舌不潤하는 것은 肺金이 清利하지 못하는 것으로, 語言塞滯하고 脣緩 流涎沫하는 것은 脾經의 中風證으로, 昏冒不語하고 遺溺 直視 足廢하는 것은 心腎經의 中風으로, 狂言見鬼하고 舌黑 手足熱하는 것은 胃中에 實熱이 있는 것으로, 謾罵하고 혹 棄衣 登高하는 것은 痰火가 心神을 迷惑케 한 것으로, 두서없는 말을 하고 바보처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痰이 心에 들어가 顛證을 유발한 것으로, 갑자기 말을 못하고 牙關이 緊閉하여 열리지 않는 것은 外邪가 침입한 것으로, 갑자기 양이나 개 등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風痰이 癇證을 발한 것으로 보았다.³⁰⁾ 이는 寒과 痰火를 중요 병인으로 보고

25) 嘔吐不食 水飲不得入口者 火熱相拒隔也 宜參苓薑湯; 嘔吐能食 食入即時吐出者 兩熱相爭沖也 宜酒蒸大黃湯; 食久乃吐 兼見大腹脹滿者 脾經乏火化也 宜薑附六君湯; 食久乃吐 兼見胸前脹滿者 胃府之虛寒也 宜香砂養胃湯; 食久乃吐 吐出多帶水液者 腎部之虛寒也 宜仲景真武湯; 食久乃吐 吐出多帶酸水者 肝藏有寒熱也 宜仲景烏梅丸; 單吐痰涎 或兼咳嗽頭痛者 胃中有痰飲也 宜加味二陳湯; 單吐酸水 或兼頭痛如破者 肝寒氣上逆也 宜加味左金丸; 嘔吐不止 兼見腹痛下利者 脾氣之虛脫也 宜附子理中湯; 嘔吐發熱 或兼口苦胸滿者 少陽之逆氣也 宜原方柴胡湯; 卒然嘔吐 兼見發熱惡心者 感瘴厲異氣也 宜藿香正氣散

26) 外感咳嗽 吐痰清白而涎者 傷寒有水氣也 宜小青龍原方; 外感咳嗽 吐痰黃色而粘者 傷風動火氣也 宜新方麥冬湯; 久咳上氣 痰涎多而聲易者 肺腎之陽虛也 宜加味真武湯; 久咳上氣 聲乾澁而痰凝者 肺腎之陰虛也 宜加味猪苓湯; 小兒咳嗽 連喘數十餘聲者 肝血之不和也 宜加味逍遙散; 婦人乾咳 由于經水不行者 衝任之氣逆也 宜變化柴胡湯

27) 氣緊喘促 鼻塞聲音不利者 風寒閉肺竅也 宜蘇子降氣湯; 氣喘而促 審系呼出氣短者 內有停水飲也 宜二陳五苓散; 氣喘而促 審系吸入氣短者 腎中之氣虛也 宜八味腎氣丸; 胸膈有聲 喉中澀澀不利者 痰氣爲寒阻也 宜破痰射干丸; 喘胸氣逆 噫咳痰塞溺黃者 肺胃之火逆也 宜清熱降逆湯

28) 驟然吐血 兼見頭痛寒熱者 外感傷經脈也 宜麻黃芍藥湯; 吐血口渴 脈洪數而溺赤者 火熱傷陰分也 宜加味四生丸; 吐血口和 脈弦微而溺清者 陽虛而陰脫也 宜變化理中湯; 吐後口渴 血帶黑而腹痛者 瘀血積腹裏也 宜加味四物湯; 吐血之前 必先大發惡心者 血潮而凌心也 宜鬱金丹皮湯; 先行咳嗽 然後得吐血證者 肺燥傷陰脈也 宜清燥和血湯; 先行吐血 然後得咳嗽證者 陰陽不相符也 宜調陰和陽湯; 吐血之後 皮膚魚鱗甲錯者 腹中有乾血也 宜大黃蠅蟲丸; 大便下血 其下在糞之前者 腸風痔瘡類也 宜赤豆加味散; 大便下血 其下在糞之後者 肝脾不統血也 宜仲景黃土湯; 通身汗血 甚則沾衣盡赤者 火甚而血溢也 宜加味六黃湯; 鼻中流血 以及齒縫出血者 胃中之燥熱也 宜清涼甘露飲

29) 遺精有夢 或兼心煩善怒者 心肝之火邪也 宜龍膽清肝湯; 遺精無夢 或兼陰頭寒冷者 腎元之陽虛也 宜加味天雄散

30) 聲音閉塞 鼻塞而喉中緊者 會厭被寒侵也 宜麻黃杏仁湯; 言語不利 喉痺而咽生瘡者 肺經有痰火也 宜尖貝平肺散; 聲音嘶小 喉乾而舌不潤者 肺金不清利也 宜麥冬旋覆湯; 語言塞滯 脣緩而流涎沫者 脾經中風證也 宜資壽解語湯; 昏冒不語 遺溺直視足廢者 心腎經中風也 宜地黃飲子湯; 狂言見鬼 舌黑而手足熱者 胃中有實熱也 宜三一承氣湯; 出言謾罵 或兼棄衣登高者 痰火迷心神也 宜礞石滾痰丸; 出言顛倒 其人痴不識人者 痰入心而顛也 宜朱砂丹礬丸; 卒倒不言 牙關緊閉不開者 外邪之驟中也 宜

증상에 따라 장부를 나누어 감별한 것이다. 또한 정신과 영역의 병인으로 胃熱과 痰火, 風痰 등을 언급하고 있다.

心神은 心中大煩하고 舌黑 不得臥한 것은 少陰의 陽煩으로, 心中大躁하고 手足이 躁搖 不安한 것은 少陰의 陰躁로, 心中怔忡하고 跳動이 절구를 찢는 것 같은 것은 心脾의 血虛로, 心悸怯하고 항상 叉手하여 冒心하고자 하는 것은 水氣가 心經을 凌侮하는 것으로, 心驚惕하고 神魂이 스스로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心虛氣浮로, 心神恍惚하고 入夜하면 흔히 煩夢하는 것은 心의 血虛有火로, 心神恍惚하고 每事에 記憶하지 못하는 것은 火에 痰을 겸한 것으로, 心神이 不定하고 起居가 여러 가지로 不安한 것은 百脈이 모두 合病한 것으로 보았다.³¹⁾ 이는 心인 少陰의 입장에서 음양론적으로 陽煩과 陰躁를 감별한 것이다. 心悸怔忡은 血虛와 水氣로, 健忘은 痰火로 보았으며 百合病도 언급하고 있다.

斑黃은 紅紫色 반점이 나고 身熱 口中乾渴하는 것은 陽明經의 血熱로, 發黃이 明亮하고 口渴 溺赤을 겸하는 것은 脾經의 濕熱로, 發黃이 黑暗하고 口和 不渴을 겸하는 것은 脾經의 寒濕으로 보았다.³²⁾ 이는 發斑을 陽明血熱로 본 것이다. 또한 황달을 비위의 문제로 결부시키고 있으나 실질 간담의 문제이며 비위가 연관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萎黃에 대한 해석이 확대된 오류일 뿐이다. 그러므로 장상학적인 분류보다는 濕熱과 寒濕의 증상학적인 분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汗出은 發熱 出汗하고 때로 惡風洒洒하는 것은 傷風의 外證으로, 잠잘 때 땀이 나고 깨면 그치는 것은 陰虛盜汗으로, 깨어 있을 때 땀이 나고 잠잘 때는 그치는 것은 陽虛自汗으로 보았다.³³⁾ 여기서 땀이 나는 것은 傷寒에 대한 傷風의 중요한 감별요점이 된다. 그러나 景岳이 비판한 것과 같이 自汗과 盜汗에 모두 陰虛와 陽虛의 상황이 있으므로 단순히 陰虛盜汗과 陽虛自汗으로만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腫脹은 머리부터 부어 手足까지 내려가는 것은 外濕에 상한 것으로, 다리부터 부어 腹股까지 올라가는 것은 內水가 不行한 것으로, 腫脹 溺赤하고 혹 口渴 脈數을 겸하는 것은 陽鬱水壅으로, 腫脹 溺清하고 口不渴 脈沈한 것은 陰結水停으로, 單腹腫大하고 四肢瘦削하는 것은 脾虛血結로 보았다.³⁴⁾ 이는 外濕과 內濕에서 인체 上下部 중 어느 곳에서 먼저 浮腫이 있었는지를 감별 요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변 양상, 口渴 유무, 맥으로 음양과

한열을 나누고 있으며, 영양실조인 脾虛血結도 언급하고 있다.

飲食은 배고파 밥 생각이 있으나 每食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것은 脾強胃弱으로, 먹으면 善飽하나 每飽에 도리어 脹하는 것은 胃強脾弱으로, 잘 먹지 못하고 不思飲食하는 것은 脾胃兩虛로, 喜飲冷水하여 消渴이 그치지 않는 것은 胃中の 虛熱때문으로, 喜飲熱湯하고 혹 腹痛 厥利를 겸하는 것은 脾部の 虛寒으로, 傷食 腹痛하고 吐酸 噯腐를 겸하는 것은 宿食이 停滯되어 不去한 것으로, 食入氣噎하고 因하여 哽噎不下하는 것은 肺氣가 下降하지 못하는 것으로, 食必飲送하여 마시지 않으면 삼키지 못하는 것은 胃氣가 下降하지 못하는 것으로, 飲傷腹滿하고 小便不利를 겸하는 것은 膀胱氣가 不化한 것으로 보았다.³⁵⁾ 이는 장상학적으로 脾寒과 胃熱을 기본으로 감별한 것이다. 또한 食積과 氣滯도 언급하고 있다.

起居는 轉側艱難하여 曲伸이 不利한 것은 少陽의 樞가 逆한 것으로, 身體沈重하고 四肢運動이 艱滯한 것은 脾經에 濕氣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³⁶⁾ 이는 경락학적으로 少陽에, 장상학적으로 脾經에 연관이되어 감별한 것이다.

倒仆는 猝倒地하여 手撒 目閉한 것은 中風虛脫證으로, 手握 口噤한 것은 中風實閉證으로 보았다.³⁷⁾ 이는 증상적으로 허실을 나눠 감별한 것이다.

抽掣은 角弓反張하여 뒤로 跌仆하는 것은 太陽經의 瘳病으로, 頭低足縮하여 앞으로 跌仆하는 것은 陽明經의 瘳病으로, 한쪽 手足을 牽引 搖擗하여 不用하는 것은 少陽經의 瘳病으로, 筋惕肉動하고 振振然하게 땅을 짚고자 하는 것은 寒水가 筋肉에 침범한 것으로, 四肢拘急하여 疼痛 難忍한 것은 寒이 甚하여 筋이 收引한 것으로, 四肢酸痛하여 焦痿不用한 것은 火가 甚하여 筋을 灼枯한 것으로, 四肢軟弱하고 步履가 疲怠하여 不收한 것은 濕이 甚하여 筋이 縱弛한 것으로 보았다.³⁸⁾ 이는 경락학적으로 後, 前, 側을 나누었고, 寒, 火, 濕을 중요한 감별 지표로 삼은 것이다.

蟲蟲은 吐蟲 蟲痛하고 혹 舌에 白花가 생기는 것은 腎風木所生으로, 口咽에 生蟲하여 二陰까지 生蟲하는 것은 古名의 狐惑病으로, 誤中蟲毒하여 白礬을 먹되 도리어 喑한 것은 邪가 變하여 臟氣에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³⁹⁾ 鬼祟는 乍醒乍昏하고 寒熱

吹鼻通關散; 卒倒作聲 有如羊犬等狀者 風痰發癇證也 宜加味二陳湯
31) 心中大煩 舌黑而不得臥者 少陰之陽煩也 宜黃連阿膠湯; 心中大躁 手足躁搖不安者 少陰之陰躁也 宜加味白通湯; 心中怔忡 跳動如春確白者 心脾之血虛也 宜加味歸脾湯; 心悸而怯 常欲叉手冒心者 水氣凌心經也 宜桂枝甘草湯; 心驚而惕 神魂不能自主者 心虛而氣浮也 宜桂枝龍牡湯; 心神恍惚 入夜則多煩夢者 心虛有火也 宜原方安神丸; 心神恍惚 每事不能記憶者 有火兼有痰也 宜加味安神丸; 心神不定 起居百般不安者 百脈皆合病也 宜加味百合湯
32) 發斑紅紫 身熱口中乾渴者 陽明經血熱也 宜加減三黃湯; 發黃明亮 兼見口渴溺赤者 脾經之濕熱也 宜茵陳梔子湯; 發黃黑暗 兼見口和不渴者 脾經之寒濕也 宜茵陳五苓散
33) 發熱出汗 時見惡風洒洒者 傷風之外證也 宜防風和營湯; 睡後出汗 醒時則汗仍收者 陰虛而盜汗也 宜當歸六黃湯; 醒時汗出 睡後則汗仍收者 陽虛而自汗也 宜參芪朮附湯
34) 先首腫起 以下及于手足者 傷于外之濕也 宜加味五皮湯; 先脚腫起 以上及于腹股者 內之水不行也 宜原方真武湯; 腫脹溺赤 或兼口渴脈數者 陽鬱而水壅也 宜加味五皮散; 腫脹溺清 其口不渴脈沈者 陰結而水停也 宜原方真武湯; 單腹腫大 其人四肢瘦削者 脾虛而血結也 宜加味逍遙散

35) 飢而思食 每食又不能多者 脾強而胃弱也 宜重訂調胃丸; 食而善飽 每飽又作反脹者 胃強而脾弱也 宜抑胃扶脾湯; 不善于食 而并不思飲食者 脾胃兩皆虛也 宜建中複理湯; 喜飲冷水 以及消渴不止者 胃中虛熱故也 宜原方甘桔散; 喜飲熱湯 或兼腹痛厥利者 脾部之虛寒也 宜附子理中湯; 傷食腹痛 兼見吐酸噯腐者 宿食停不去也 宜加減平胃散; 食入氣噎 因而哽噎不下者 肺氣不下降也 宜降肺平胃散; 食必飲送 無飲即不下咽者 胃氣不下降也 宜甘蜜半夏湯; 飲傷腹滿 兼見小便不利者 膀胱氣不化也 宜原方五苓散
36) 轉側艱難 以及曲伸不利者 少陽之樞逆也 宜當歸柴胡湯; 身體沈重 四肢運動艱滯者 脾經有濕氣也 宜和脾利濕湯
37) 猝倒地 其症手撒目閉者 中風虛脫證也 宜急救三生散; 猝倒地 其象手握口噤者 中風實閉證也 宜吹鼻通關散
38) 角弓反張 以及向後跌仆者 太陽經瘳病也 宜防風竹茹湯; 頭低足縮 以及向前跌仆者 陽明經瘳病也 宜清陽已瘳湯; 一邊手足 牽引搖擗不用者 少陽經瘳病也 宜加味柴胡湯; 筋惕肉動 振振然欲擗地者 寒水干筋肉也 宜以仁真武湯; 四肢拘急 以及疼痛難忍者 寒甚筋收引也 宜桂枝附子湯; 四肢酸痛 以及焦痿不用者 火甚筋灼枯也 宜大劑補陰丸; 四肢軟弱 步履疲怠不收者 濕甚筋弛也 宜利濕燥筋湯
39) 吐蟲蟲痛 或見舌起白花者 腎風木所生也 宜仲景烏梅丸; 口咽生蟲 以及二陰生蟲者 古名狐惑病也 宜新制化蟲丹; 誤中蟲毒 食白礬而反脹者 邪變入臟氣也 宜經驗吐利湯

面色無定한 것은 鬼怪가 人身에 붙은 것으로, 癲狂見鬼하여 潮熱 譫語한 것은 神魂이 火에 의해 어지럽혀진 것으로 보았다.40)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당시의 의학적 한계로 인한 穿鑿에 불과하므로 논외로 한다.

3권. 부인과와 소아과

婦人調經은 經水先期하고 色深紅 煩怒하는 것은 血분에 熱이 있는 것으로, 經水後期하고 色暗 腹疼痛한 것은 血분에 寒이 있는 것으로, 經水過多하여 漏下不止한 것은 衝任의 虛損으로, 經水過少하여 乾枯 發熱한 것은 胞宮의 血虛로, 經前腹痛하여 行經不利한 것은 血분에 瘀滯가 있는 것으로, 經後腹痛하여 經水減少한 것은 血虛不足으로, 漏下白物하여 米飲같은 것이 不絶한 것은 脾濕帶下로 보았다.41) 이는 월경의 선후, 색 등으로 한열을 나누었으며, 월경량의 다소와 월경통의 발생 시기 및 양상도 감별 요점으로 중시한 것이다.

婦人安胎는 胎中嘔吐하고 數次 惡阻가 그치지 않는 것은 脾胃氣가 阻滯된 것으로, 胎中心煩하고 口渴 頭暈을 겸하는 것은 心胃의 虛火로, 胎中腰痛하고 심하면 流產될 것 같은 것은 帶脈의 解弛로, 胎中腹痛하고 痛甚하여 墜胎할 것 같은 것은 胎氣의 不和로, 胎前尿結하여 口乾 惡熱하는 것은 血虛胎燥로, 胎前溺黃하여 黃濁不利한 것은 胞熱 水滯로, 胎胞下壓하여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은 胞系의 不舉로, 胎胞上逼하여 心中煩悶不安한 것은 血虛 火迫으로, 胎前水腫하여 腹中脹滿한 것은 胞宮의 水가 不化한 것으로, 胎前咳嗽하여 喘嘔不安한 것은 子咳와 子喘으로 보았다.42) 이는 장상학적으로 증상을 감별한 것으로 임신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雜證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婦人保產은 출산할 즈음에 滑胎를 預備하고 催生하는 것은 반드시 氣血을 調和케 해야 하는 것으로, 臨產催生에 交骨이 結하여 不開한 것은 血氣가 活動하지 않는 것으로, 新産之初에 腹痛 頭暈等症은 瘀血이 서로 攻沖한 것으로, 産後瘀盡하여 諸虛百損이 나타나는 것은 氣血이 크게 虧損된 것으로 보았다.43) 이는 정상 출산을 위해 기혈의 조화가 관건이 됨을 강조한 것이다.

小兒外證은 小兒發熱하고 惡寒 頭痛을 겸하는 것은 太陽經 傷寒으로, 小兒口噤하고 手足이 抽掣하며 痰潮한 것은 傷風하여

痰火를 動한 것으로 보았다.44) 小兒內證은 初生小兒가 허리를 굽히고 啼叫不休하는 것은 瘀血이 腹內에 積滯된 것으로, 小兒腹痛으로 脹滿 吐瀉하는 것은 太陰經에 過責이 있는 것으로, 小兒食積으로 手足熱 腹痛한 것은 脾胃가 運化하지 못하는 것으로, 小兒黃瘦하여 腹大 潮熱하는 것은 脾胃의 疳疾로 보았다.45) 이는 소아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외감 風寒과 내상 食積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驚風, 어혈, 영양실조도 언급하고 있다.

결론

唐宗海는 병증을 국소의 발병 부위에 따라 『醫學見能』 1권에, 전신 증상에 따라 2권에 정리하였으며, 3권에 부인과와 소아과를 별도로 두어 大方科와 다른 병증들을 첨부하였다. 이는 그가 초학자들을 위하여 찾아보기 편리하게 한 편집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는 진단에 있어서 각각의 임상 증상들을 經絡學과 藏象學적으로 陰陽 寒熱 虛實에 맞춰 감별진단하는 기준을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이는 그가 인체의 陽氣와 陰血을 기본으로, 외적 요소인 風寒暑濕燥火의 外感과 七情, 飲食, 勞倦의 內傷을 중시하였으며, 병리 산물인 痰飲과 瘀血까지도 포괄하여 감별지표를 세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일목요연하게 病因과 病機를 파악하여 治療策을 강구케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中西醫匯를 주장한 그의 합리성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만 簡易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血證論』에서 그가 정리한 氣血水火陰陽論과 같은 醫論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蟲蟲門이나 邪祟門처럼 당시의 의학적 한계로 인한 오류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종합의서의 방대한 내용 중 긴요한 것만을 모아 간결하게 축약시킴으로써 임상 활용의 편의성을 극대화시켰고, 아울러 한의학의 전체 임상 범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상 전단계의 학습기에 있는 사람은 모호한 이론적 개념들을 현실화 할 수 있으며, 임상가에 있는 사람은 이를 감별진단의 기본 요체로 삼아 병증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기초로 삼아 綱領을 세운 후 여타의 종합의서들을 참고하여 보충해 간다면 한의학 연구와 임상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학습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허중찬, 조원준, 당중해의 증서회통에 의한 비위관,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3(1), 2007.
2. 唐容川, 一見能解 經驗醫訣, 杏林書院, 1963.
3. 唐宗海, 醫學見能,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40) 乍醒乍昏 寒熱面色無定者 鬼怪附人身也 宜移精變氣散; 癲狂見鬼 以及潮熱譫語者 神魂被火亂也 宜加減龍膏丸

41) 經水先期 其血深紅煩怒者 血分中有熱也宜加味地骨皮飲; 經水後期 其色暗腹疼痛者 血分中有寒也 宜當歸和血湯; 經水過多 以及漏下不止者 衝任之虛損也 宜千金膠蠶湯; 經水過少 以及乾枯發熱者 胞宮之血虛也 宜加味四物湯; 經前腹痛 以及行經不利者 血分有瘀滯也 宜加味香蘇散; 經後腹痛 以及經水減少者 血虛而不足也 宜加味補血湯; 漏下白物有如米飲不絕者 脾濕而帶下也 宜茵陳四苓湯

42) 胎中嘔吐 數次發惡不休者 脾胃氣阻滯也 宜香砂六君湯; 胎中心煩 兼見口渴頭暈者 心胃之虛火也 宜安胎清火湯; 胎中腰痛 過甚則恐胎墜者 帶脈之解弛也 宜加味固胎丸; 胎中腹痛 痛甚亦能墜胎者 胎氣之不和也 宜調氣安胎飲; 胎前尿結 以及口乾惡熱者 血虛而胎燥也 宜麻仁養血湯; 胎前溺黃 以及黃濁不利者 胞熱而水滯也 宜龍膽清熱湯; 胎胞下壓 小便不得下出者 胞系之不舉也 宜八味腎氣丸; 胎胞上逼 心中煩悶不安者 血虛而火迫也 宜養胃清降湯; 胎前水腫 以及腹中脹滿者 胞宮水不化也 宜加味防己湯; 胎前咳嗽 以及喘嘔不安者 子咳與子喘也 宜調肺平肝湯

43) 將産之期 預備滑胎催生者 必調和氣血也 宜保産無憂散; 臨産催生 交骨結而不開者 血氣不活動也 宜加味佛手散; 新産之初 腹痛頭暈等症者 瘀血相攻沖也 宜加味失笑散; 産後瘀盡 諸虛百損並見者 氣血大虧損也 宜十全大補湯

44) 小兒發熱 兼見惡寒頭痛者 太陽經傷寒也 宜入參敗毒散; 小兒口噤 手足抽掣痰潮者 傷風動痰火也 宜羌活息風湯

45) 初生小兒 屈腰啼叫不休者 瘀血積腹內也 宜用下瘀湯; 小兒腹痛 以及脹滿吐瀉者 總責太陰經也 宜香砂六君湯; 小兒食積 手足熱而腹痛者 脾胃不運化也 宜加減平胃散; 小兒黃瘦 以及腹大潮熱者 脾胃之疳疾也 宜已疳胡連湯